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은 여름에도 이어진다”

하계 전지훈련 30개팀 573명 찾을 계획 유소년대회 등 6개 전국단위 대회 예정 올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 185억 기대

평평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은 여름철에도 이어진다. 해남군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축구 11개팀을 비롯해 근대5종, 육상 등 30여개 팀, 573명이 해남을 찾아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인원으로는 3만 5000여명에 이르며 하반기까지 4만 5000명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계 시즌동안 총 6개의 전국 선수권대회가 지역에서 개최된다. 3개 유소년 대회, 1개 청소년 대회, 1개의 대학·일반 대회, 해외선수가 참여하는 1개의 종합경기대회가 열린다.

참가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율이 높은 유소년 대회 등을 집중 개최함으로써 전국단위 대회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해남군은 올해 연인원 11만명 방문을 목표로

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9만 7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목표대비 68%를 상반기에 달성,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기존 방문팀에 대해 훈련장을 개방하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배분과 일정 조율, 철저한 방역지침 운영을 통해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또한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스포츠 전담부서를 만들어 각 종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교류와 신뢰가 이어져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해남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몰리는 비결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스포츠마케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해남군 선수단 숙소 예약은 끝났으며, 동계시즌 예약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약 185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관광, 농수산물 유통으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명원관 군수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을 삼고 스포츠마케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수과 임원,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훈련과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22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스포츠 명품고장이라는 위상을 입증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의회, 지역 내 주요 기관 단체 방문...소통 의정 ‘시작’

제9대 진도군의회 전반기 의정단이 관내 기관·단체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통 의정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진도군의회가 지난 5일 선출된 장영우 의장과 김준화 부의장 선출을 알리고, 기관별 현안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도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NH농협은행,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진도지사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물론 진도중학교, 진도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단체와 청년회의소, 대한노인회, 예총진도지회 등 사회단체까지 총 22개소를 방문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장영우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비롯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 군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도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진도군의회는 군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설정, 기관·사회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똑똑한 실내정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식물 유지관리 자동화기술 도입한 스마트가든 설치

장흥군이 새로운 개념의 실내정원을 선보여 관광객과 군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목재산업지원센터, 정남진도서관, 바이오산단 내 기업 등 3곳에 식물 유지관리 자동화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가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가든은 미세먼저 흡착의 공기정화 효과와 심신안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개념의 정원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반응을 통해 피로 및 스트레스 완화에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장흥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 정남진 도서관, 산단 기업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해 관광객은 물론, 군민과 지역 근로자에게 건강한 환경을 선물했다.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전복 지압·향통’

보드게임·책갈피·자개 그림 록·전복 펜던트 등 다양한 작품 수상

완도군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2 완도군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입상작 12점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관광 기념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민·공예품, 공산품 등이 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20일까지 관광 기념품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4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상징성, 시장성, 심미성, 창의성, 작품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전복 껍데기와 나무의 부드러운 질감을 이용해 만든 박영기 씨의 ‘전복 지압과 향통’이 차지했다.

금상은 이예진 씨의 범바위의 전설이 담긴 보드게임, 은상은 권혁수 씨의 책갈피 세트, 배종길 씨의 완도군 전복면 휴피리, 동상은 김지은 씨의 자개 그림 록, 키링, 헤어 끈, 강미희 씨



의 돌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기념품 3종, 배철지 씨의 전복 펜던트 등이 선정됐다.

대상은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각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 입선·아이디어상에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길수 관광과장은 “이번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완도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면서 “입상 작품들은 완도군 대표 관광 기념품으로 상품화하여 관광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단속 강화 나섰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 카메라 설치

강진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일반방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문제와 생활민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관내 무단투기 의심지역 39개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단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4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강진군 상반기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배가 증가했으며, 군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쓰레기 감축과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사회단체와 종량제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읍면과 경로당 등 순회 교육,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